

#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 작품 속에 나타난 아시아 태평양전쟁과 ‘조선군’

김영숙 \_ 동북아역사재단 초빙 연구위원

## 목 차

- I. 머리말
- II. 일본의 전황 악화와 징병 확대
- III. 조선의 풍경과 위생병 생활
- IV. 마쓰모토 세이초가 본 조선인 병사들
- V. 맺음말

### 국문초록

마쓰모토 세이초는 1944년 7월부터 일본 패망 후인 1945년 10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경성의 용산과 전라북도 정읍에서 위생병으로 복무하였으며, 이 경험을 토대로 6편의 소설과 1편의 자서전을 발표하였다. 소설로는 용산을 무대로 하는 「임무」, 「염전」, 「원거리 접근」이 있고, 정읍을 무대로 하는 「빨간 제비뽑기」, 「백제의 풀」, 「도주로」가 있다.

이 논문은 세이초의 용산 제20사단 시절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전쟁의 전황과 그 안에서 ‘세이초가 바라본 조선’에 초점을 두면서 관련 작품을 분석한 것이다. 세이초의 조선군시기 관련 작품 분석을 통하여 첫째, 일본의 병

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징병 확대와 병역 비리를 고찰하였다. 둘째, 당시 용산의 병영 풍경과 위생병 세이초의 일상과 심경을 살펴보았다. 셋째, 조선인 지원병제와 징병제 실시의 실제 운용 상황을 살펴보았다.

## 주제어

마쓰모토 세이초, 마츠모토 세이초, 조선군, 식민지 조선, 용산, 아시아 태평양전쟁

---

## 1. 머리말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 1909-1992)는 흔히 추리소설가, 특히 ‘사회파 추리소설가’로서 유명하다. 그러나 그의 작품 세계는 시대소설 및 역사소설, 역사론, 작가론, 수필 및 기행문 외에 『일본의 검은 안개(日本の黒い霧)』, 『쇼와사 발굴(昭和史発掘)』 등 논픽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더욱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이초는 1944년 7월부터 일본 패망 후인 1945년 10월까지 ‘조선군’ 병사로서 용산과 정읍에 주둔하였고, 이 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여러 편의 작품을 썼다.

세이초 작품의 한국어 번역은 추리소설 중심의 베스트셀러에서 최근에는 초기 단편들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으로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 한국 학계의 세이초 연구 역시 기존에는 추리소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sup>1)</sup>, 최근에는

---

1) 조정민, 「점령기역의 연속과 단절-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 『제로의 초점(ゼロの焦点)』의 경우」, 『동북아 문화연구』 23, 2010; 이동,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사회성 고찰 : 소설 『모래 그릇』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영화,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점과 선(点と線)』 고찰-‘조작’과 ‘은폐’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유수정, 「마이너 신체성의 굴레-사회파 추리소설 모래그릇(砂の器)에서 보는 한센병」, 『아시아문화』 45, 2017; 이병진, 「일본 근대문학의 집합적 무의식과 터부 - 마쓰모토

그의 한국 관련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sup>2)</sup>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김용의는 세이초의 한국 관련 작품을 총 24편으로 정리하고 그 중 ‘일제 강점기 병영 체험의 기억’으로 플롯을 구성한 작품으로는 「빨간 제비뽑기(赤いくじ, 1955)」, 「백제의 풀(百濟の草, 1963)」, 「도주로(走路, 1963)」, 「박열 대역사건(朴烈大逆事件, 1964)」, 「원거리 접근(遠い接近, 1971-1972)」 등 5편을 꼽았다<sup>3)</sup>. 그런데 이 분류는 「박열 대역사건(朴烈大逆事件, 1964)」을 병영 체험에 포함시켰다는 것과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도망쳐서 처형당한 인물을 통해 가족들 품에서 죽어가고 싶은 병사들의 소망을 위생병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염전(厭戰, 1961)」을 ‘역사소설의 소무대로서의 임진왜란’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분류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마쓰모토세이초기념관(松本清張記念館)은 군대 체험을 소재로 한 세이초의 작품으로 10편을 분류<sup>4)</sup>하였지만, 병영 체험을 전면적으로 다루면서 김용의의 분류에서 누락된 작품은 「임무(任務, 1955)」 단 한 편뿐이다. 여기에 세이초의 자서전인 「반생의 기록」을 포함시켜 조선에서의 군대 체험을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을 발표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빨간 제비뽑기」, 「임무」, 「염전」, 「백제의 풀」, 「도주로」, 「반생의 기록」, 「원거리 접근」의 7편, 즉 소설 6편과 자서전 1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소설 6편 중 「임무」와 「염전」

---

세이초(松本清張)의 「모래그릇(砂の器)」을 중심으로, 『일본학』 49, 2019; 오준방, 「김성종과 일본 추리소설 관련 연구 : 김성종의 《최후의 증인》과 마쓰모토 세이초의 《제로의 초점》을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20 등이 있다.

2) 한기련,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 연구-한국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79, 2018; 김용의,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한국 관련 작품 양상 및 특징」, 『일본연구』 84-52, 2020; 김영숙, 「전쟁의 제물로 강요당한 여성들: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빨간 제비뽑기(赤いくじ)」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공간』 28, 2020.

3) 김용의, 앞의 논문, p.69.

4) 北九州市立松本清張記念館編, 『松本清張の軍隊時代-朝鮮の風景』, 北九州市立松本清張記念館, 2004, p.20.

이 심리소설인데 비해, 「원거리 접근」, 「빨간 제비뽑기」, 「백제의 풀」, 「도주로」는 스토리 전개를 쫓아가는 작품이다. 한편, 「임무」와 「염전」, 「원거리 접근」은 용산을 무대로 하며, 「빨간 제비뽑기」, 「백제의 풀」, 「도주로」의 무대는 정읍이다. 이들 작품에 나타난 병영생활에 대한 묘사는 매우 구체적이며 「반생의 기록」의 회상을 소설에서 더욱 생생하게 설명해준다. 군대생활 관련 내용은 묘사보다는 서술에 치중하면서 자서전의 확장판 또는 변형판의 성격을 띠며, ‘어느 조선군 병사의 기록’이라는 의미도 있다.

세이초의 조선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일종의 전쟁문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쟁문학’이란 관점에서 읽었을 때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준다. 같은 아시아 태평양전쟁 시기라 해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전선까지를 경험한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 1907-1960), 1941년에 입대하여 1942년 3월 바탄, 코레히도르전투에 참가한 노마 히로시(野間宏, 1915-1991), 1945년 남방으로 파견되는 도중에 수송선이 격침당하여 바시해협(Bashi Channel)에서 7시간을 표류했던 시바타 렌자부로(柴田鍊三郎, 1917-1978) 등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전쟁’이 결여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전쟁문학이란 대체로 적과의 생생한 전투장면이나 전쟁의 극적 긴장감 등을 작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특징인데, 단 한 번도 전투를 경험하지 못한 세이초의 소설에는 전쟁문학의 특성인 박진감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세이초 작품의 가치는 무엇일까? 조선군 체험을 담은 작품에는 전쟁의 긴박함은 없지만 역사학의 빈자리를 채우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 아시아 태평양전쟁의 전황 악화 속에서 실시된 일본의 징병 확대와 그 가운데 발생한 병역 비리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두 번째는 당시 용산의 병영 풍경과 그 안에서 생활하는 병사들의 일상과 심경을 담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일본의 패색이 짙어가는 상황 속에서 조선인 지원병제와 징병제

실시 등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의 실상을 알 수 있다. 전형적인 전쟁 소설로서는 미흡하지만 한국 독자에게는 충분히 흥미로운 내용이며, 식민지 지배 체제와 전시 동원의 이론만으로는 알 수 없던 정책의 이면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이초의 군대 체험을 담은 7편의 작품 중에서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분석한 일본 패전과 귀환에 대한 내용<sup>5)</sup>을 생략하고, 용산을 무대로 하는 「임무」, 「염전」, 「원거리 접근」, 「반생의 기록」을 중심으로 세이초의 조선군시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첫째,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 일본의 다양한 징병 확대 양상과 징집 비리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둘째, 세이초가 경험한 용산 제20사단 의무실과 위생병의 업무를 고찰한다. 셋째, 식민지 조선에 실시된 지원병제도와 징병제도의 실상을 밝힐 것이다.

## II. 일본의 전황 악화와 징병 확대

### 1. 마쓰모토 세이초 징집 영장의 문제점과 병역 비리

흔히 1941년 12월 8일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으로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 침략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영국령 말레이 반도 코타바루(Kota Bharu)에 일본군이 상륙한 것이 그보다 1시간 전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미국 태평양함대에 타격을 입히는 한편, 말레이 반도와 필리핀 점령이라는 전과를 올리면서 초기 승전에 도취하였으나 1942년 6월의 미드웨이 해전 패배와 1943년 2월 과달카날섬 철수 등으로 패색이 짙어졌다.

이미 장기화되어 있던 중일전쟁이 아시아 태평양전쟁으로 확장되면서 병

---

5) 김영숙, 앞의 논문.

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 본래 일본의 징병 검사는 20세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갑종과 을종은 현역에 적합한 자, 병종은 현역에 적합하지 않지만 국민병역에 적합한 자, 정종은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 구분하였다. 중일전쟁 시작 무렵까지는 대체로 갑종 합격자만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제1을종이 제1보충병역, 제2을종이 제2보충병역, 병종이 제2국민병역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제1을종까지 현역병으로 징집되고 제2을종이 제1보충병역이 되었으며, 1939년에 제2보충병역 충당을 위해 제3을종이 신설되었다<sup>6)</sup>. 한편, 현역 장교의 비율도 1939년에 36%였으나, 1945년 시점에서는 15%로 저하되었고, 나머지 장교는 노령 예비역 장교를 소집하거나 육군사관학교 졸업 정규장교가 아닌 간부후보생 출신의 예비역 장교 등으로 메웠다<sup>7)</sup>.

세이초가 만 20세 때 받은 체력검사 결과는 신체허약으로 인한 제2을종 보충병<sup>8)</sup>이었다. 그런데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아시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본래는 현역 대상이 아닌 세이초에게도 1942년 12월 ‘교육소집’ 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시에는 ‘교육소집’이 본 소집으로 이어져 그 길로 전쟁터에 끌려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세이초는 구루메(久留米)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고 일단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실제 전쟁터로 파병되는 본 소집영장을 받은 1944년 6월 28일<sup>9)</sup> 당시 세이초는 만 34세였으며, 부모와 아내, 그리고 3남매의 부양

6) 吉田裕, 『アジア・太平洋戦争』, 岩波書店, 2007(한국어 번역판은 최혜주 옮김, 『아시아 태평양전쟁』, 어문학사, 2012. 단, 본문의 인용은 일본어판에 의한다), pp.100~101.

7) 吉田裕, 같은 책, pp.98~99. 일본군에서 ‘간부’란 하사관 이상을 지칭하는데, 간부 후보생제도는 1927년부터 시행되어 비교적 단기간에 예비역 장교 혹은 예비역 하사관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전쟁으로 급속히 예비역 장교를 배출할 필요가 생기자 1944년 5월부터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육군 외부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였다.

8) 森史朗, 『松本清張への招集令状』, 文藝春秋, 2008, p.24.

9) 森史朗, 같은 책, p.68.

가족을 둔 가장이었다.

세이초가 1942년 만 32세로 교육 소집되었을 때 검사장에서 담당자는 의외라는 듯이 영장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자네, 교련에는 잘 나갔나?”라고 물었다. 세이초가 별로 안 나갔다고 대답하자, 비로소 “아하, 그래서 걸렸구만<sup>10)</sup>.”이라고 납득하였다. 세이초는 “서른 셋이나 먹은 내가 각반을 차고 목검이나 휘두를 기분은 아니었다.”는 이유로 재향군인회 교련을 등한시하고 회사에서 하사관 출신이 하는 사내 교련에도 거의 불참하였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던<sup>11)</sup> 것이다. 즉, 아무리 전황이 악화되었다고는 하나 부양 가족을 줄줄이 거느린 서른 넘은 가장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고, 재향군인회 교련 불참의 징벌이었던 것이다.

이 시기 징병제도의 문제점은 단순히 징병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 뿐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은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 징병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다. 그들은 소집 사무를 담당하는 연대구사령부 직원에게 금품을 주어서, 재향군인회명부에서 본인의 명부를 파기하거나 재향군인회 명부에 전시소집연기자 혹은 병역을 감내하기 어려운 병약자로 지정 기입하는 방법<sup>12)</sup>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누군가가 권력과 인맥을 활용하여 영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뺄 수 있었다면, 그들이 회피한 영장에는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기입되어야 했다. 이 때 영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평소 재향군인회나 관청에 밍보인자들

---

10) 마쓰모토 세이초, 김정남 역, 『아직 늦지 않았다-마쓰모토 세이초, 반생의 기록』, 모비딕, 2019(松本清張, 『半生の記, 『松本清張全集』34, 文藝春秋, 1974), p.123. 이하 『반생의 기록』으로 표기. 이 표현의 원문은 ‘반동에 당하다(ハンドウを回される)’로서 당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었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원거리 접근』에서 주인공은 이 반동(ハンドウ)이라는 말이 ‘보복’, ‘양갓음’, ‘징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 즉, 자신이 평소에 재향군인회가 주최하는 교육훈련을 게을리 한 데 대한 징벌로서 서른 살이 넘는 나이에 영장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11) 『반생의 기록』 p.122.

12) 吉田裕, 앞의 책, pp.107~108.

이었다. 본래는 보충병이었을 세이초 역시 권력과 인맥을 활용할 수 있던 누군가를 대신하여 징집당한 병사 중 한 명이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영장 발급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작품이 「원거리 접근」이다. 이 작품은 『주간 아사히(週刊朝日)』에 「검은 도설(黒の図説)」이라는 시리즈 제9화로 1971년 8월 6일부터 1972년 4월 21일까지 연재된 후 1972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그 후 1975년에 NHK방송에서 ‘토요드라마’ 제1화로 방영된 바 있다. 주인공 야마오 신지(山尾信治)가 소학교 졸업 학력의 색판화공이라는 점, 늙은 부모와 아내, 그리고 세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 용산에 있는 조선군사령부 예하 제20사단 제78연대에 배속되었다는 점에서 그가 세이초의 분신임을 알 수 있다. 소설은 전 38장으로 구성되어 1~19장이 일본의 패전 이전, 20~38장이 전후 일본으로 나뉘는데 그 중 3~19장이 주인공의 군대생활에 관한 내용이다. 전반부가 서술에 중점을 둔 자서전의 확장판이라면, 후반부는 주인공이 자신에게 부당한 영장을 발부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완전범죄를 계획·실행하는 복수극과 그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극으로 구성되었다. 제목인 「원거리 접근」은 주인공 야마오가 자신과 가족을 나라로 떨어뜨린 소집영장 발부자를 색출하여 복수에 이르는 머나먼 도정을 의미한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영장 발부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의 경과, 그리고 영장 발부자가 영장의 부정 발급을 스스로 잡지에 고백하게 하는 용의주도한 접근, 그리고 완전범죄를 지향하는 치밀한 복수 등을 의미하는 중의적인 표현<sup>13)</sup>이다. 야마오의 범죄가 결국 발각되고 소설은 자살을 암시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완전범죄가 성공한

13) 세이초는 작품 제목에 상호 모순되거나 반어적인 표현을 많이 썼다. 원제목인 ‘먼 접근(遠い接近)’은 상호 모순되는 표현이지만, 본문의 설명과 같이 복합적인 의미를 담았다. 아직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소설이기 때문에 알맞은 표현은 아니더라도 김용의 번역 ‘원거리 접근’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문 인용은 松本清張, 『遠い接近』, 文藝春秋, 1988에 의한다(이하 「원거리 접근」).

다 해도 어차피 그의 복수는 아무 것도 돌이킬 수 없기에 소설의 결말은 쓸쓸하고도 처연하다.

『문예춘추』에서 세이초를 담당하였던 편집자 모리 시로(森史朗)는 『문예춘추』 1955년 2월호에 실린 「병사 제조인의 수기<sup>14)</sup>」라는 글이 집필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모리에게서 “5,000명, 10,000명의 소집 영장을 누구에게 보낼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수기 내용을 전해들은 세이초가 그 글을 읽고 나서 6개월 후에 연재를 시작한 소설이 「원거리 접근」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저널리스트이자 전사(戰史) 연구자인 한도 가즈토시(半藤一利)는 일명 ‘죽창(竹槍)사건’이라 불리는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기자 신묘 다케오(新名丈夫, 1906-1981)<sup>15)</sup>에 대한 육군의 소집 영장 발부사건이 세이초의 저술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묘는 1944년 2월 23일자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현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에 육군:해군의 자원 배분이 6:4 또는 6.5:3.5의 비율로 육군 중심인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썼고, 이 기사는 당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수상의 분노를 샀다. 그 결과 징병검사에서 약시 판정으로 이미 병역 면제를 받았던 신묘는 2등병으로 징병적 소집을 당하였다. 당시 신묘사건은 연일 보도되었고 세이초가 소집 영장을 받던 시기는 아직 신묘사건의 여파가 강했던 때였으므로, 세이초 자신도 군대 조직이 정실(情實)로 소집을 강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sup>16)</sup>는 것이다. 특히 한도는 세이초가 소설에서 인용한 「병사 제조인의 수기」를 기획한 편집자였다.

---

14) 森史朗, 앞의 책, p.241.

15) 신문기자 출신 평론가. 육군의 보복 소집에서는 중일전쟁 당시 육군의 종군기자였던 경력과 해군의 비호로 3개월만에 소집 해제되었다. 이후 육군이 재소집하려 하자 해군은 선수를 쳐서 신묘를 해군보도반원으로 필리핀에 파견하여 보호하였다.

16) 半藤一利·小森陽一, 「朝鮮の風景・衛生兵の日常—清張の軍隊生活」, 『松本清張研究』 17, 2016, p.12.

「원거리 접근」에서 세이초는 주인공의 입을 빌어 영장 발부를 둘러싼 부정행위를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첫째, 영장을 발부하여 군에 징집하는 의미이다. 영장은 ‘천황 폐하가 적자를 전투의 장에 불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명예’이며, 그가 속한 ‘향당과 가문의 면목’을 세우는 것이라고 미화되었지만 징벌적 영장 발부는 국가 권력의 그늘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놈’에 대한 ‘죽음을 건 사적 징벌<sup>17)</sup>’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소집 영장은 천황의 적자로서 누리는 명예가 아니라 평소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다른 사람이 피해간 죽음의 열차에 강제로 승차해야 하는 형벌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을 군대에 징집하는 것은 남은 가족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세이초는 자신이 징집될 경우에 대비하여 1939년에 신문사 직원이 되었고, 그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최저 생활비라도 가족에게 월급이 지급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고 했으나, 남은 가족들이 ‘신문사에서 나오는 돈의 부족분을 메우는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sup>18)</sup>’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런데 자영업자에게는 그런 최소한도의 보장조차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저축이 있다 해도 가장이 제대할 때까지 버티기 어려웠으며, 아시아 태평양전쟁 말기의 징집은 생존하여 제대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따라서 처자식이 딸린 30대 가장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그 가족들까지도 생존의 벼랑에 내모는 것이었다.

세이초는 「병사 제조인의 수기」를 각색한 「영장 제조의 둔갑술」이라는 글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였다.

---

17) 「원거리 접근」, p.248.

18) 『반생의 기록』 p.134.

전시 중 한 장의 소집 영장에 의해 운명이 비틀린 국민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불구가 되고, 가족은 밑바닥의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졌다. 전사 230만 명, 부상자 15만 명, 유족 400만 명이라는 비참한 숫자는 일본 전역에 눈보라처럼 뿌려진 소집 영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영장이 건네진 순간부터 본인은 물론 가족도 죽음의 입구에 세워져 두려워 떨며, 평화로운 생활의 파괴 앞에 잿빛이 되는 것이다<sup>19)</sup>.

소설 속의 잡지 기사라는 액자 형식의 글이지만 소집 영장 한 장의 무게에 대한 비판은 매우 신랄하다. 세이초는 영장 발부의 책임감과 그 무서운 결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원거리 접근」에서 야마오가 입대한 사이에 그 가족들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척이 있는 ‘안전한’ 히로시마(廣島)로 소개(疏開)하였다가 원폭을 맞아 전원 사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아내인 요시코(良子)는 피복창고에서, 학교 다니는 자녀 둘은 소학교에서, 부모와 막내는 집에서 죽었다고 추정되었을 뿐<sup>20)</sup>, 시체도 찾지 못한 야마오의 허망함과 고독이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일그러뜨린 영장 발부자에 대한 복수를 정당화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 2. 조선군 안의 다양한 일본인 병사들

일본의 전황이 악화되면서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징집 대상을 제1을 종, 제2을종에까지 확대하는 외에 다양한 징병 확대 조치가 이루어졌다. 우선 병역법 규정에 의해 대학·고등학교·전문학교 등의 학생에게 26세까지 징병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개정하였다. 1941년 10월에는 대학과 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을 3개월 단축시켜 징병검사 합격자를 1942년 2월에 입대시켰으며,

---

19) 「원거리 접근」 p.259.

20) 「원거리 접근」 p.295.

1942년에는 예과와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시켜 9월 졸업, 10월 입대라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서 1943년 10월 2일의 재학징집연기임시특례(在學徵集延期臨時特例)<sup>21)</sup>로 재학을 사유로 하는 징집 연기를 폐지하였다. 이 개정은 '시국의 요청, 특히 군의 간부 보충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되었다<sup>22)</sup>. 더불어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갑종 간부후보생제도, 경리부 및 법무부 장교 보충특례가 만들어졌는데,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이들 간부후보생 장교는 가장 위험한 지역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었다<sup>23)</sup>.

세이초가 「반생의 기록」에서 자세히 언급한 학도병은 두 명이며, 그 중 한 명은 도쿄 간다(神田)의 약품 도매상 아들이었다. 세이초는 실제로 경성 변화가에 있는 그 거래처에 가서 그의 이름을 대고 소독약을 무상으로 얻었는데<sup>24)</sup> 중대에서는 약품 구매 비용을 대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

또 한 명은 수습 군의관이었던 경성약학전문학교<sup>25)</sup>에서 온 스물 두세 살 정도의 학도병이었다. 경성약학전문학교는 1933년 일본 문부성의 약학전문학교 지정을 받아 졸업하면 일본에서도 갑종 약제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

21)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22864800, 「御署名原本・昭和十八年・勅令第七五五号・在學徵集延期臨時特例」

22) 加藤陽子, 『徴兵制と近代日本 1868-1945』, 吉川弘文館, 1996, p.249.

23) 南富鎮, 「松本清張と丸山眞男の朝鮮」, 『松本清張研究』 14, 2013, p.135.

24) 「반생의 기록」 p.135.

25) 1909년 약업총합소에서 설립한 조선약학강습소를 전신으로 1915년 조선약학강습소로 본격적인 양약 교육을 시작하였다. 1919년 을지로 6가의 구한말 훈련원 자리로 이전하였다. 1930년 조선총독부의 전문학교 승격 인가를 받아 경성약학전문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33년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약학전문학교 지정을 받아 일본의 약제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일본에는 제국대학과 대학에는 약학부가 없었고 관공립전문학교도 3개교뿐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1938년 3월 졸업생 120명 중 조선인은 26명이었으며, 1941년에는 일본인 40명, 조선인 32명이 졸업하였다. 1950년에 국립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편입되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홈페이지 참조.

으므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학교였다. 세이초는 공용증을 받아서 총독부 옆에 있는 약학전문학교 부속병원에 갈 때마다 이 학도병이 병원 약국의 여직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해주곤 하였다. 세이초는 ‘우습게도 서른다섯 살이나 먹은 내가 그 젊은 연인들의 연애편지를 배달해주고 있었다<sup>26)</sup>.’고 회상하였으나, 이 수습 군의관은 얼마 후 남방으로 가서 생사를 모르게 되었다<sup>27)</sup>고 한다.

또한, 내무반에서 간부후보생 학도병들끼리 요코미쓰 리이치(橫光利一)의 『여수(旅愁)』라는 작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을 때 세이초는 ‘젓빛 막사 속에 반짝 하고 불이 켜진 듯한 기분<sup>28)</sup>’을 느꼈다. 당시 일본에서의 일상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소설 읽는 것도 회피하고 있던 그는 문학 이야기에 잠시 숨통이 트였는지도 모른다.

한편,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를 실시하기 전에 재조 일본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현지 소집이 실시되었다. 세이초의 작품 중 조선에서 현지 소집된 병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은 「빨간 제비뽑기」와 「원거리 접근」, 「백제의 풀」이 있다.

먼저 「빨간 제비뽑기<sup>29)</sup>」는 사단 사령부가 있는 전라북도 고창을 무대로 남편이 조선 현지에서 소집되어 현재 라바울(Rabaul)에 주둔하고 있는 쓰카니시 에미코(塚西恵美子)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둘러싼 두 장교의 각축전과 패전 후 미군에 일본인 여성들을 위안부로 바치려는 계획을 다루고 있다<sup>30)</sup>. 조선에서 소집된 병사를 전면에서 다루지 않지만 격전지인 라바울에서 소식

26) 『반생의 기록』 p.137.

27) 『반생의 기록』 p.138.

28) 『반생의 기록』 p.138.

29) 마쓰모토 세이초, 김경남 옮김, 「빨간 제비」, 『어느 「고쿠라 일기」 전』, 모비딕, 2017(松本清張, 『ある「小倉日記」伝』新潮社, 1965). 「빨간 제비」라는 번역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빨간 제비뽑기」로 번역하였다.

30) 김영숙, 앞의 논문 참조.

이 끊긴 남편의 부재가 사건의 출발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이초 자신도 본래는 뉴기니로 파병될 예정이었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살아서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을 터이므로 그의 작품에는 ‘남방<sup>31)</sup>’ 파병이 주요 모티브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백제의 풀」은 군산 남쪽에 있는 인구 3만의 소도시 금읍(金邑)이라는 가상도시가 무대이다. 「백제의 풀」이라는 제목은 주인공인 이하라 유이치(井原雄一)가 아내 히사코(寿子)와 자주 산책을 다녔던 곳이자 살인사건의 무대인 모악산 자락의 금산사가 백제 고찰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이하라는 도쿄제국대학 공학부 출신으로 스즈이물산(鈴井物産) 중역의 사위이며, 준설기를 이용하여 사금을 채집하는 광업소 기사로 조선에 부임하였다. 재조 일본인 징집으로 입대한 이하라는 용산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고 위생병으로 배치되어 다시 두 달 정도 경성 육군병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수송선이 격침당하여 예정된 필리핀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금읍에 있는 사단에 배치되었다. 소집 영장을 받았을 때 혼자 남을 아내의 거취에 대해서는, ‘미국도 본토는 공격하더라도 조선은 독립시켜서 장차 우방으로 확보해 두고 싶을 테니<sup>32)</sup>’ 폭격이 일어나지 않을 조선에 남기로 결정하였다. 재조 일본인들의 현지 소집은 남은 가족들이 조선에 잔류할지, 일본으로 귀국할지의 거취 결정도 동반하는 문제였다.

한편, 「원거리 접근」의 호소이(細井)는 부산시청 병사계에 근무하다 입대한 인물로서 영장 발부의 과정을 주인공에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단이 동원계획에 따라 관내에서 필요한 인원을 연대구사령부에 통보하고 사령

31) ‘남방’이란 중국 전선에 대하여 남쪽인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1941년 11월 6일에 편성된 남방군의 관할지역인 동남아시아와 남양군도, 동맹국인 타이완국까지 포괄하였다.

32) 마쓰모토 세이초, 이규원 옮김, 『현란한 유리』, 도서출판 북스피어, 2018(松本清張, 『松本清張全集』2, 文藝春秋, 1971). 인용은 번역본에 의한다. p.90.

부 소집계가 소집 권한을 갖지만 어차피 인원수에 맞추어 영장을 발부할 뿐이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빼거나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시청 병사계장에게 있다<sup>33)</sup>고 알려준다. 병사계장의 부정을 항의한 징별로 군대에 오게 된 인물로서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조 일본인에 대한 영장 발부도 정실관계에 의하여 발부되었음을 상징한다.

「원거리 접근」에서 세이초는 조선 현지에서 소집된 일본인 병사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였다.

조선인 ‘장정’들이 입대하기 전에 재조 일본인들이 소집되어 들어왔다. 그들은 기 교육병이었다. 지금까지 조선에 오래 있던 ‘내지인’은 소집대상에서 되도록 벗어나 있었던 듯한데, 이 대거 입대는 마침내 전국이 얼마나 긴박한 지를 깨닫게 하는 바가 있었다.

제22부대에 들어온 이들 소집병은 남에서 북까지 조선 전역에 걸쳐 있었다. 직종은 관공리, 회사원, 은행원, 백화점원, 상점주, 어업 선주, 산림주, 공장 기술자, 광산 기사, 노동자 등을 망라하여 그 대부분이 10년 이상 조선에 거주한 사람들이었다. 연령도 평균 32세로서 하사관은 적고 상등병이 비교적 많았다.

그들은 당초부터 기운이 없었다. 조선에서 소집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듯 의외의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다<sup>34)</sup>.

조선에 건너온 일본인 청장년들 중에는 이미 병역을 마친 재향군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재조 일본인 남성들은 중일전쟁 이후에도 오랜 동안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 때 소집된 일본인들이 식민지 통치의 한 축을 담당하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평균 연령 32세의 노병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산업 주요 분야를 이끌

33) 「원거리 접근」 pp.190~192.

34) 「원거리 접근」, p.183

어가는 청장년층까지 징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일본의 전황 악화와 병력 부족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설마 자신이 소집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터라 조선 현지 소집 병사들의 군대생활 적응은 더 어려웠을 것이다.

### Ⅲ. 조선의 풍경과 위생병 생활

#### 1. 용산 조선군사령부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주한 미군의 부지 반환과 이후 활용논의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옛 조선군사령부가 있었던 용산지역은 둔지산(屯地山) 자락에 있었다. 한국주차군으로 출발한 조선군이 사령부 건물을 세운 곳은 현재의 충무로이며, 둔지산 일대의 땅을 강제 매입하여 주둔지를 설치한 것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사령관시대인 1906년부터였다. 조선에 상주할 2개 사단 증설이 결정된 후 제19사단은 1916년 5월부터 1919년 2월에 걸쳐 완성되어 사단 사령부를 나남에 두었으며, 제20사단은 1919년부터 1921년 4월에 걸쳐 완성되어 사단 사령부를 용산에 설치<sup>35)</sup>하였다. 제19사단 편성 완료와 주차부대의 일본 복귀에 따라 주차군사령부를 1918년 5월 29일 조선군사령부로 개칭하였다.

조선군은 소련에 대비한 제19사단과 남한을 중심으로 조선 내부의 치안 및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제20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륙 침략에 적극 개입하면서도 한반도 서북부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제30사단이 1943년 5월에 평양에서 신설되었다<sup>36)</sup>. 일본군의 전황이 악화되면서 조선군 제20사단은 1943년 1월 뉴기니로, 제30사단은 1944년 5월 필리핀으로, 제19사단 역

35) 宮田節子編,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pp.11~12.

36) 조진, 「중일전쟁 이후 조선군의 '평양사단' 증설과 그 의미」, 『송실사학』 44, 2020, p.126.

시 1944년 11월에 필리핀 전선에 투입되었다.

조선군은 1945년 8월 패전 당시 지상 2군, 9사단, 5사관구, 2혼성여단과 3요새 및 항공 1군 1사단을 근간으로 하는 약 23만<sup>37)</sup>으로 팽창해 있었으나, 1942년까지만 해도 평시 약 6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1943년 1월 제20사단의 남방 파견, 5월의 제30사단 신설, 1944년 2월 제49사단의 임시 편성 후 제30사단과 제49사단의 동원 파견이 이루어졌으며, 제150사단과 제160사단이 신설되고, 제120사단과 제111사단 등이 편입되는 1945년 4월 이후 급팽창하는 양상을 보였다<sup>38)</sup>.

세이초는 이미 인도네시아, 뉴기니, 필리핀, 마리아나제도를 잇는 일본의 '절대국방선'이 붕괴되고, 사이판전투가 시작된 후인 1944년 6월 28일에 입대하였다. 그리고 조선군이 남방으로 파견되면서 각 지역 위수지역에 유수사단이 편성되는 시점에 조선군에 전속된 것이었다. 그 직후인 7월 9일에 사이판전투에서 일본군은 전멸하였고, 이 책임을 지고 7월 18일에 도조내각이 총사직하였다. 세이초는 조선군 제20사단 제78연대 보충대 사단에 소속되었다가 1945년 5월에 새로 편성된 제150사단에서 패전을 맞았다.

조선군에 전속되어 용산에서 보낸 경험에 대해서 세이초는 「임무」, 「염전」, 「원거리 접근」과 「반생의 기록」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임무」와 「염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며, 「원거리 접근」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우선 조선군사령부 연병장 맞은편에 보이는 용산의 빨간 벽돌 병사(兵舎)에 대해서는 '언덕의 경사를 따라 쌓아올린 것처럼 밀려올라간' 용산의 병

---

37)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71078700, 「第17方面軍司令官兼朝鮮軍管区司令官 上月良夫」

38) 宮田節子編, 『朝鮮軍概要史』, 부록 <표 1> '조선군 병력량의 증감 추이 개견도(概見圖)' 참조.

영은 작은 굴뚝이 몇 개나 있는 서양식 건물로서 포플러 숲이 둘러싸고 있어 ‘마치 북유럽과 같은 풍경<sup>39)</sup>’이었으며, ‘빨간 벽돌로 된 건물은 담쟁이덩굴로 덮여 마치 외국의 유서 깊은 대학 구내처럼 장중<sup>40)</sup>’하였고, ‘붉은 벽돌담에는 하늘에 직선으로 뻗어 있는 포플러 나뭇가지 사이로 흰 까치가 무리를 지어 날고 있었다<sup>41)</sup>’고 묘사하였다. 빨간 벽돌건물, 포플러, 까치 등이 용산 병영을 설명하는 공통적인 키워드이다.

용산의 병영 울타리 너머는 흰 옷을 입은 조선인들이 느긋하게 걸어다니는 민간인들의 사회였고, 중대 병사의 창문에서는 언덕 비탈길에 있는 조선인 민가의 초가지붕이 정면으로 보였다. 이렇게 조선인들의 삶의 공간과 바로 연결된 용산의 병영은 병사들에게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부채질하였다. 해질 무렵 집집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은 부모님과 아내, 아이들과 저녁 먹던 시간<sup>42)</sup>을 떠올리게 하였다.

병영 목욕탕 뒷면은 병영의 울타리였는데, 철책은 낮았고 뒤쪽 길은 사람의 통행이 적었다. 울타리 너머의 작은 개천을 뛰어넘는 것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고, ‘만약 어떤 조건이 조금이라도 더해졌다면 나는 그때 탈주병이 됐을지도 모른다<sup>43)</sup>.’고 세이초는 회상하였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병영의 낮은 울타리를 그가 뛰어넘지 않았던 것은 신문사 직원으로서 입대할 그의 가족들이 받는 최저 생활비와 조선과 일본 사

39) 「원거리 접근」, p.123.

40) 松本清張, 「任務」, 『松本清張研究』 17, 2016, p.118. 「임무」는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으로서,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으나 『松本清張研究』 17에 재록되었다. 이하 「임무」.

41) 松本清張, 『厭戦』, 浅田次郎, 奥泉光, 川村湊, 高橋敏夫, 成田龍一編, 『コレクション戦争と文学』 11, 集英社, 2012, p.503. 이하 「엽전」.

42) 「원거리 접근」, p.155.

43) 「반생의 기록」 p.133.

이에 있는 바다라는 거대한 존재 때문<sup>44)</sup>이었다.

용산의 병영과 탈주의 유혹에 대해서는 용산을 배경으로 한 모든 작품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특히 ‘바다’라는 장벽이 주제인 작품이 바로 「염전」이다. 세이초는 하나의 소재를 이용하여 여러 작품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1955년 12월에 『문학계』에 발표한 「임무」와 1961년 7월 『별책 신일본문학』에 연재한 「염전」은 용산에 주둔한 부대의 위생 2등병인 주인공이 급성 폐렴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간호한다는 내용에서 동일하다. 또한 죽어가는 환자가 양복 만드는 기술자이며 사후에 남은 편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도 같다. 그런데 「임무」가 스다(須田) 군의 견습사관의 변모 과정과 환자인 미카미(三上) 2등병의 진단과 간호를 통해 위생병으로서의 ‘임무’를 환기시키는데 방점을 둔다면, 「염전」은 야마구치(山口) 2등병의 간병을 통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고 싶은 환자의 바람을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몰래 고향으로 도망쳐갔다가 처자식과 함께 처형당한 하리오 사헤이(針尾佐平)의 일화에 빗대어 쓴 작품이다. 주인공은 중병에 걸린 환자들이 “죽어도 좋으니 내지의 병원으로 이송해달라<sup>45)</sup>.”고 호소하는 것을 사헤이가 마지막 진술에서, “어차피 죽을 거라면 처자식과 함께 삼도천을 건너겠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였으며, 그 자신도 ‘다다미 위에서 처자식이 보는 가운데 죽는 것이 인간 최후의 가장 큰 행복이다. 다른 곳에서는 죽고 싶지 않다<sup>46)</sup>’고 절실히 느꼈다. 한편, 「임무」에서는 미카미 2등병이 죽은 후 그가 병상 베개 밑에 아내에게서 온 편지 한 통뿐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의 다른 여자에게서 온 3통의 편지까지도 소중히 간직했던 것을 발견하고 죽은 병사의 삶에 연민을 느끼게 되는데 비해, 「염전」에서 야마구치 2등병이 죽은 후 그의 베갯머리에서 나온 5, 6

44) 『반생의 기록』 pp.133~134.

45) 「염전」, p.513.

46) 「염전」, p.509.

통의 편지는 모두 그의 아내가 남편을 걱정하며 쓴 것이었다. 함께 했던 즐거운 추억을 회상하고, 병이 났다는 말을 듣고 밥도 안 넘어가며, 아이들도 매일 아침 가미다나(神棚)에 아버지의 완쾌를 빌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즉, 1961년에 발표된 「염전」은 1955년작 「임무」와 같은 소재를 사용하되, 임진왜란 직후의 규슈(九州)와 1940년대 용산이라는 무대를 교차시키면서 가족들 곁에서 죽고 싶은 환자의 열망과 그를 걱정하는 가족의 절절한 마음을 그려낸 작품이다.

32세에 징집된 「염전」의 주인공은 내무반<sup>47)</sup>에서 행해지는 ‘사적 제재’라는 이름의 폭력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빨간 벽돌 낮은 담장은 어떻게든 뛰어넘어 바깥 도로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런 유혹을 느낄 때마다 그의 공간적 계획을 좌절시킨 것은 조선해협이었다. 경성에서 남쪽 해안까지 탈출에 성공하여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조선인에게 배를 내게 한다 해도 당장 해군의 경비정이나 연안 경비대에 발견되어 버릴 것이라는 절망 때문에 ‘한 번에 뛰어넘을 것 같은 빨간 벽돌담도 우러러볼 만큼 높은 장벽’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군대생활의 괴로움과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절절한 바람을 담은 이 작품의 제목에 대해 소설 본문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임진왜란 때 사해이가 도망쳐서 건너간 바다와 1940년대 주인공의 앞을 가로막는 장벽으로서의 바다를 통해 ‘전쟁에 대한 혐오’ 또는 거부감을 「염전(厭戰)」이라는 제목에 담았다고 볼 수 있다.

---

47) 구 일본군에서는 교련 이외의 병영 안에서의 생활을 ‘내무’라 부르며, 그 내무를 행하는 최소 단위조직이 내무반이다. 판자를 깔 큰 방안에 초년병과 고참병을 합쳐 20~40명이 기거하며 이곳이 침실, 식당, 총기손질실, 휴양실을 겸하였고, 군인정신 함양을 병자하는 사적 제재의 온상이 되었다.

## 2. 용산 제20사단 의무실과 위생병의 일과

「임무」, 「염전」, 「원거리 접근」은 위생병인 주인공을 통해 당시의 사단 의무실과 육군병원, 군의관과 위생병의 업무를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 특히 「임무」는 세이초가 자신의 조선군 체험을 소재로 쓴 첫 번째 작품 「빨간 제비뽑기」에 이어 같은 해인 1955년 12월에 발표한 작품이다. 제150사단 소속 병사로서 정읍에서 패전을 맞이했던 경험을 토대로 쓴 작품이 「빨간 제비뽑기」라면, 「임무」는 용산의 제20사단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담았다. 용산을 배경으로 한 소설 3편 주인공의 입대 연령은 34세, 32세, 32세이며, 입대 전의 직업을 「임무」에서는 교원, 「원거리 접근」에서는 색판화공으로 설정하고 있다. 세이초의 분신인 주인공들은 자신의 부대가 격전지 뉴기니로 파견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글씨를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직업상의 특기를 강조하여<sup>48)</sup>, 어떻게든 야전부대가 아닌 중대 사무실 근무를 통해 조선에 남으려고 하였다.

당시 제20사단에는 현역인 고급군의 외에 병원을 운영하다 징집된 두 명의 군의 소위가 있었고, 위생병 약 20명이 의무실에 근무<sup>49)</sup>하였다. 과거에는 간호병이라 불렸던 위생병들은 사무실, 약제실, 진단실, 휴양실, 치료실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세이초는 진료실 담당으로서 군의관이 진찰할 때 옆에서 진료장부를 기록하거나 약제실에 보낼 약 이름을 적었다. 이 때 그는 어려운 의학용어가 등장하는 군의관의 진단을 한자로 정확하게 기입하고, 병상 일지를 잘 정리하여 군의관의 신임을 얻었다. 이 내용은 「임무」, 「원거리 접근」에 자세히 언급<sup>50)</sup>되었다. 위생병들은 군의 주력 전투병이 아니어서 ‘요정’

---

48) 「원거리 접근」, p.124, 「임무」, p.119.

49) 「원거리 접근」, pp.137~138.

50) 「임무」 p.120, 「원거리 접근」 pp. 143~144.

이라는 멸칭(蔑稱)으로 불리며 본과의 병사들에게 무시를 당했다. 약품이 부족하여 무슨 병이든지 ‘요도징키<sup>51)</sup>’를 발라준다는 의미였다. 그렇지만 의무실에서는 입장이 전도되어 본과의 병사들에게 ‘위생병님’이라고 불리었다.

위생병의 일과는 의무실 업무가 시작되는 9시에 맞추어 아침 8시 반에 내무반을 나와서 언덕 위에 있는 길다란 빨간 벽돌건물 의무실로 출근하였다. 출근 전에 신병으로서 청소와 밥 나르기, 식기 반납 등을 하고 일과가 끝나면 의무실 청소 등도 담당하였다. 나중에 요령이 생기자 진료가 대개 오전 중에 끝나도 나머지 시간에는 진료 장부를 정리하고 중대로 돌아가기 싫으면 뭐라도 핑계를 대고 남아 있다가 점호 직전에 돌아가기도 했다<sup>52)</sup>.

한편, 군의관 2명이 9시 전부터 각 중대에서 밀려드는 80, 90명, 많게는 1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오전중에 진찰<sup>53)</sup>하였다. 「임무」에서는 스다(須田) 군의 견습사관, 「염전」에서는 단지 ‘견습군의’라고만 불리는 인물은 처음에는 자신의 산부인과 환자들을 대하듯 시간을 들여 정중하게 진찰하였으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두 시간 만에 환자 전부를 처리하는 놀라운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 그런데 군대의 이러한 형식적인 진료와 열악한 치료 환경은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하였다. 첫째, 정확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치료시기를 놓친 병사들은 결국 사망하게 된다. 둘째, 병역 확대로 인해 병사들의 체력이 저하되자 군대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병사들을 제대시키는 ‘약병(弱兵) 정리’를 시행하였는데, 진단서와 의견서에 고급군 의가 날인하여 부대 본부에 보내면 부대장 재결로 결정되었다. 이 경우 자의적 판단과 병역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

51) 요오드 톱크를 가리킨다. 머큐로크롬과 함께 빨간 약의 대명사로서 한국에서는 ‘아카징키’라고도 불리었다.

52) 『반생의 기록』 p.136~137.

53) 「원거리 접근」, p.141.

위생병인 세이초는 약품 도매점에 약을 사러 간다고 보고하면 공용증을 받아 단독 외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황 악화로 병사들의 주말 외출이 전면 금지된 후에도 병영 밖에 나갈 수 있었다고 회상하였다. 그는 약을 사러 다니는 길에 헌책방에 들르고 조선인 거주지역을 배회하거나 종로 뒷골목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즐겼다<sup>54)</sup>. 그러나 정작 중대에서는 약값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변한 약을 구비할 수 없었고 위생병들에게 ‘요징’이라는 굴욕적 호칭을 듣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정읍에서의 경험이지만 당시 부식이 부족하여 풀을 먹은 병사들이 각기 병에 걸리자 세이초는 식물도감에서 먹을 수 있는 식용 들풀의 그림을 베끼는 업무를 맡았다. 얇은 등사지로 본을 떠서 연필로 그린 후 그 위에 정밀히 그려서 색칠까지 한 작업은 의무부장과 사단장을 흡족하게 하였지만 세이초 자신은 “내가 그린 그림이 정말로 병사들에게 도움이 되었을지는 의심스러웠다<sup>55)</sup>.”고 회상하였다. 즉, 약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생병의 업무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세이초의 작품에는 당시의 의무실과 육군병원의 열악한 환경에 관해서도 자세히 묘사되었다. 조선의 겨울은 강폭이 넓은 한강이 두텁게 얼어서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혹독하게 추웠으며, 바닥이나 복도를 닦으면 그 물기가 금방 얼어붙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석탄 결핍으로 병실 폐치카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환자들은 외투를 입은 채로 추위를 견뎌야 했다.

의약품 부족과 열악한 병원시설, 그리고 병사들의 몸에 이가 들끓을 정도로 엉망인 위생상태 등 전시기의 의료 환경은 군의관이나 위생병을 무력하게 하였다. 특히 조선은 전투가 없는 지역이어서 의무실이나 육군병원에서

---

54) 『반생의 기록』 p.136.

55) 『반생의 기록』 pp.144~145.

위생병의 업무는 행정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렇기에 군의관의 형식적인 진단과 처방에 의해 한 생명이 죽음에 이르고, 그 간호를 맡아 환자의 인생의 이면까지 들여다 본 경험이 「임무」라는 제목의 소설로 탄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 IV. 마쓰모토 세이초가 본 조선인 병사들

### 1. 조선인 지원병

일본은 중일전쟁의 장기화로 식민지 청년에 대한 군사적 동원을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가 1938년 2월 22일 칙령 제95호 ‘육군특별지원병령<sup>56)</sup>’을 통해 시행된 지원병제도였으며, 해군은 1943년부터 실시하였다. ‘호적법 적용을 받지 않는 만 17세 이상 제국 신민 남자’에게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 훈련소 과정을 거쳐 현역 또는 제1 보충병역에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즉, 식민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병제도였다. 한편, 이른바 ‘학도 지원병’이라 불리는 제도는 1943년 10월 20일 육군성령 제48호로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규칙<sup>57)</sup>’로서 그 동안 징집이 연기되었던 대학 및 전문학교에 재학중인 조선인 및 타이완인 학생까지 전쟁에 동원하는 것이었다. 일본인 학도병에 이어 식민지 청년도 학도병으로 동원한 것이다. 이 제도는 이미 조선인 징병 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신체검사에 불합

---

56) 아시아歴史資料センター, A03022177300, 「御署名原本・昭和十三年・勅令第九五号・陸軍特別志願兵令」

57) 아시아歴史資料センター, C08070700000, 「18年 10月 20日 大臣 昭和 18年度陸軍特別志願兵臨時採用規則の件」

격한 대학의 식민지 청년들을 입영시키기 위해 실시<sup>58)</sup>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안기는 조선인 지원병에 대한 일련의 연구<sup>59)</sup>에서 ‘지원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 육군특별지원병제에 관해 ‘법제적 강제성을 동반하는 징병제와는 달리 문자 그대로 자발적 지원’이었기 때문에 연평균 47.7배에 달하는 지원자 경쟁률은 관청 채용이 있었다 해도 지원 여부는 지원자 개인의 적나라한 욕망을 반영한다<sup>60)</sup>고 평가하였다. 그는 학도지원병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의 구조적 강제성과 달리 지원의 물리적 강제성이 없는 문자 그대로 특별 지원<sup>61)</sup>’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상이는 학도 지원의 부진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선배들과 언론을 동원한 홍보와 행정적 색출 및 비지원자에 대한 징용이 실시된 것을 밝혔고, 표영수는 학도 지원에 대한 각종 강압과 징용 등으로 무리하게 입대시킨 학도지원병들이 병영내 강압행위와 민족차별 속에 진행한 탈출계획 사례로 평양학병사건을 분석<sup>62)</sup>하였다.

세이초의 작품에 등장하는 조선인 지원병은 모두 ‘학도 지원병’으로서 ‘조선인 학도병’이라고 표현되었다. 여기서는 학도지원병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지원병의 사례를 통해 세이초가 그들과

---

58) 이상의, 「태평양전쟁기 조선인 전문학생·대학생의 학도지원병 동원 거부와 ‘학도징용’」, 『역사교육』 141, 2017, pp.119~120.

59) 정안기, 「조선총독부 육군지원자훈련소와 ‘국민 만들기’」, 『한일군사문화연구』 24, 2017.; 정안기, 「전시기 육군특별지원병제의 추계와 분석」, 『정신문화연구』 41-2(통권 151), 2018; 정안기, 「1930년대 육군특별지원병제의 성립사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61, 2018; 정안기, 『충성과 반역: 대한민국 創軍 · 建國과 護國의 주역, 일본군 육군특별지원병』, 조갑제닷컴, 2020.

60) 정안기, 「전시기 육군특별지원병제의 추계와 분석」, p.298.

61) 정안기, 「전시기 학도지원병제에 관한 고찰」,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9. 6. 이 발표집은 본문 내용 없이 요지문만 수록되어 있으므로 주장에 대한 논증은 확인할 수 없다.

62) 표영수, 「일제말기 병력동원정책의 전개와 평양학병사건」, 『한일민족문제연구』 3, 2002.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살펴보자.

위생 2등병으로 근무하다 이듬해 1등병으로 진급한 세이초는 약품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공용증을 받아 외출할 수 있었다. 외출을 나가 종종 헌책방을 기웃거리면서도 소설책에는 손을 대지 않던 그가 어느 날 군복 속에 감춰서 내무반에 들고 간 것은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영어 교과서였다. 날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동물적인 나날 속에 머리가 굳어져 갈 즈음 그런 책이라도 읽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았다고 하지만, ‘적국의 언어’를 공부하다가 발각되면 처벌당할 위험이 있었다. 당시 그가 영어책을 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물어보면 가르쳐주던 사람은 조선인 학도병이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고 나중에야 그가 예전에 반전운동과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한국인 학도병 몇 명과 헌병대에 끌려갔다<sup>63)</sup>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내용은 소설 「원거리 접근」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부대에는 전부터 징병이 아닌 지원병으로 들어온 조선인 병사도 있었다. 대부분이 1등병이었는데 어느 날 의무실 사무실에 있던 한 명이 헌병대에 검속되어 사라졌다. 다른 중대에서도 몇 명 나왔다는데 소문으로는 공산주의자라던가, 조선독립운동을 위하여 군대의 내정 탐지를 목적으로 잠입한 ‘불령분자(不逞分子)’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전황이 불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며, 아직 한 번도 공습을 받지 않은 조선 역시 표면으로는 평온해보여도 그 밑바닥부터 기분 나쁘게 흔들리는 것처럼 여겨졌다<sup>64)</sup>.

세이초는 조선인 학도병에 대해서 ‘적국의 언어’를 물어볼 정도로 ‘비밀을

---

63) 『반생의 기록』 p.142

64) 「원거리 접근」, pp.198~199.

공유하는 최소한의 친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런 상대가 사상 문제로 헌병대에 검속되었고, 더욱이 그가 징병제가 아닌 지원병으로 입대한 사람이라는 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군대에서는 신문을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일개 병사인 세이초가 민간의 조선인과 접촉할 기회도 없었지만, 지원병의 헌병대 검속은 식민지 통치의 근본적 문제점을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으리라.

1945년 1월 26일에 육군 차관 시바야마 겐시로(柴山兼四郎)는 「조선 출신 병사의 취급 지도 쇄신 행상에 관한 건」을 하달하였다. 이 문서에서 육군 차관은 '최근 주로 그 취급 지도가 부적절한데서 기인하여 부대를 벗어나 도망하는 일이 빈번할 뿐 아니라 특히 모 부대에서는 조선 학도지원병 10명이 무리를 지어 불온한 책동을 감행하려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조선인의 활동을 크게 기대해야 할 현 시국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바이다.'<sup>65)</sup>라고 지적하였다. 이 문서가 평양학병사건 직후에 하달되었다는 점에 주의해보면, 학도 지원병제도에 대한 군 당국의 충격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세이초와 같은 시기에 '조선군'에 전속되었던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14-1996)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연보에 따르면, 마루야마는 1938년 9월의 교육소집에서는 당일 귀가 조치되었고, 1944년 7월에 다시 교육소집을 받았을 때 본 소집으로 전환되어 제 20사단 제77연대에 배속되어 평양에 배치되었다. 9월에 각기병으로 내지 송환 결정을 받고, 10월에 소집해제, 11월에 귀환하였다. 남부진은 패전 직전에 식료 부족으로 군대에서 각기병 환자가 속출하였는데 마루야마가 각기병으로 소집 해제를 받은 것은 특별한 케이스<sup>66)</sup>라고 지적하였다.

---

65)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1007858800, 「朝鮮出身兵の取扱指導刷新向上に関する件陸追加の件達牒」

66) 南富鎮, 앞의 논문, p.138.

입대 당시 1909년 12월생 세이초가 당시 만 34세였는데 비해 1914년 3월생 마루야마는 만 30세였으며, 당시 도쿄제국대학 조교수였다. 그런데 마루야마의 짧은 군대생활 중 ‘가장 못되게 굴었던 것은 조선인 1등병’이었다. 조선인 고참병은 그를 군화로 두들겨 패는 등 늘 폭력을 행사했다. “군대에서는 계급만이 절대적이므로 식민지 출신이든 아니든 전혀 관계가 없다. 군대 계급만이 전부이고 그것은 철저했다.”고 마루야마는 회상했는데, 남부진은 이를 지배와 피지배의 전도(轉倒), 사회적 권력의 전도<sup>67)</sup>라고 표현하였다.

1944년에 마루야마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선인 1등병은 징병제 실시 이전에 입대한 병사이므로 육군특병지원병이거나 학도병으로 입대한 병사일 것이다. 그런데 “마루야마에게 가혹한 린치를 퍼붓던 조선인 지원병이 세이초에게는 발견되면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적성어’를 가르쳐주었다<sup>68)</sup>.”는 남부진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루야마와 세이초가 경험한 조선인 지원병은 물론 전혀 별개의 인물이지만, 남부진이 강조하는 것은 두 사람의 사회적 계급 차이와 더불어 조선인 거리를 즐겨 배회하였던 세이초와 조선인의 시선에서 적개심을 느꼈던 마루야마의 관점 차이이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세이초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던 지원병’은 사상문제로 헌병에게 검속되었고, ‘마루야마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지원병’은 어쩌면 내무반의 ‘사적 제재’ 시스템에 적용한 병사라고 볼 수도 있다. 신병 시절 내무반의 폭력을 견뎌내고 고참이 된 후 다시 신병에게 돌려주었던 지원병은 일본군으로서 실패하지 않았지만 적국의 언어를 학습하는 비밀을 공유했던 지원병은 사상을 의심받아 헌병대에 끌려갔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원의 자발성’ 여부가 아니라 일본 군대가 식민지 청년들을 일본

67) 南富鎮, 앞의 논문, p.139.

68) 南富鎮, 앞의 논문, p.141.

군으로 양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이 아시아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 청년 징병문제를 바라보는 척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2. 조선에서의 징병제 실시와 ‘장정’

1942년 5월 8일 각의에서 ‘조선 동포에 대하여 징병제를 시행하여 1944년도부터 이를 징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할 것<sup>69)</sup>’이 결정되어 다음날 공포되었다. 그리고 제1회 징병검사가 1944년 4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17만 명의 조선인이 징집된 것으로 추정된다<sup>70)</sup>. 1944년 4월 1일부터 8월 20일에 걸쳐 제1회 징병검사가 실시되었는데 수험자 총 수는 206,057명이고 그 중 갑종합격은 33.5%<sup>71)</sup>였다고 한다.

조선에서의 징병제 실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연구가 있으나 주로 실시의 목적과 과정, 그리고 그 의의를 고찰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세이초는 실제로 조선인 병사들과 함께 생활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 「원거리 접근」이라는 작품에서 역사의 논리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실상들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그는 징병제로 입대한 조선인 병사에 대해 ‘장정’이라는 용어를 썼다.

세이초는 “군부도 조선총독도 이 제도로 진정한 ‘내선일체화’가 실현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 군대의 병력 부족에 따른 보충이라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다<sup>72)</sup>.”고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를 비판하였다.

세이초가 소속된 제22부대(제78연대)에는 춘천연대구사령부 관하의 ‘장

---

69)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10048200, 「朝鮮ニ徴兵制施行準備ノ件ヲ定ム」

70) 吉田裕, 앞의 책, pp.111~112.

71)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未来社, 1997, p.120.

72) 「원거리 접근」, p.160.

정'이 포함되어 있었다<sup>73)</sup>며 춘천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한 것을 보면, 실제로 세이초는 춘천 출신 조선인 병사들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들 조선인 병사들이 근육이 발달하고 체격이 좋아서 '갑종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세이초는 조선인 징병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조선인 병사들의 일본어 능력 문제이다. 입대한 '장정'들은 자기들끼리 조선어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거의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질문을 던지면 멍하게 있다가 '하이(はい)', 또는 '이이에(いいえ)'라고 답은 하지만, 질문을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sup>74)</sup>는 것이다. 당시 조선인 병사의 일본어 이해도는 겨우 30% 안팎으로 파악되었으며, 그들이 부대를 벗어나 도망치는 가장 큰 이유<sup>75)</sup>로 지적되었다.

두 번째로 조선인 장병들의 빈번한 탈주문제이다. 탈주사건은 빈번히 발생하였는데, 탈주병사에 대한 수색작업이 더 많은 탈주병을 양산했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1944년 여름 첫 징병제로 입대한 조선인 신병이 탈주하는 사고가 많아졌는데, 탈주한 병사를 3일 이내에 복귀시키면 '범죄'가 되지 않고, 중영창정도로 끝났다. 장교들은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되도록 부대 안의 작은 사고 정도로 처리하려고 그 때마다 수색대를 내보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병사들에 대한 '부모 같은 마음'에서가 아니라 책임자가 사태를 무마하여 처분을 피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관료와 다름이 없는 고급장교는 이력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고, 젊은 하급 장교는 고과표에 영향을 미쳐 동기들보다 진급이 늦어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sup>76)</sup>이었다. 입대할 때 병사들

73) 「원거리 접근」, p.171

74) 「원거리 접근」, p.171.

75)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1007858800, 「朝鮮出身兵の取扱指導刷新向上に関する件陸追加の件達牒」

76) 「원거리 접근」, pp.196~197.

이 돈을 얼마나 소지하고 있는지 내무조사를 하는데 이런 탈영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돈이 얼마 없는 병사들이 멀리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일본까지 도망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조선인 병사들은 경우가 달랐다.

그들에게는 가는 곳마다 숨겨주는 사람이 있었다. 부대 밖은 모두 그들의 동포였다. 탈주병은 군복을 벗으면 그대로 '선량하고 일본에 충실한 민간인'이 되었다. 중대 수색대의 눈에는 다른 조선인과 구별이 되지 않았다.

탈주병이 숨어들었다고 생각되는 장소도 수색대에게는 생소하였으므로 중대의 조선인 초년병을 길잡이로 삼았다. 그러면 잠깐 한눈파는 사이에 그 길잡이가 순식간에 도망병으로 변하였다. 미로와 같은 조선인 거주구로 도망쳐버리면 그걸로 끝이었다. 그 근처에서 물어도 조선인은 시치미를 떼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 뿐이었다<sup>77)</sup>.

이처럼 조선인 병사들의 탈영사건이 빈번하고, 수색대를 파견할 때마다 길잡이역의 조선인 병사들까지 탈주해버렸다. 한 명의 도망병이 발생하면 5, 6명 정도를 1대로 수색대를 편성하며, 각 방면을 수색하기 위해 적어도 3대 정도를 파견한다. 결국 각각의 길잡이 병사가 모두 도망칠 경우에는 1명의 도망병을 수색하려다 3명의 도망병을 추가하는 식이 되었다<sup>78)</sup>. 도망친 조선인 병사가 흰 한복으로 갈아입고 조선인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그들 사이에 있는 젊은 남자가 탈주병과 닮았다 싶더라도 아니라고 하는 한 맥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고, 괜히 거기서 시간을 끌다보면 또 다른 도망병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 바보가 된 기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색대의 일원으로서 청량리나 독섬 방면에 나갔던 주인공은 조선인 부락으로 도망쳐서 간단

77) 「원거리 접근」, pp.197~198.

78) 「원거리 접근」, p.198.

히 탈주할 수 있는 그들을 부러워하는데<sup>79)</sup>, 바다를 가운데 두고 쉽게 도망칠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세이초 자신의 심경이기도 하였으리라.

조선인 병사들이 빈번하게 탈주하는 원인으로는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의식, 조선 출신 병사들의 낮은 일본어 이해력 등이 지적되었는데, 육군성은 ‘일시적으로 조선 출신병의 배신행위를 인정하는 등이 있어도 굳이 마음에 두는 일 없이 이러한 과도적 상황을 초월, 극복하여 참된 일시동인, 골육지정으로 대승적으로 처리’하고, ‘차별의식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분’하라<sup>80)</sup>고 지시하였다.

일본어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식민지 교육과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갑자기 실시된 조선인 징병제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

79) 「원거리 접근」, p.198.

80)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1007858800, 「朝鮮出身兵の取扱指導刷新向上に関する件陸追加の件達牒」

## V. 맺음말

마쓰모토 세이초는 약 1년 3개월간 경성의 용산과 전라북도 정읍에서 위생병으로 복무하였다. 그의 조선군 체험은 6편의 소설과 1편의 자서전 안에 녹아 있는데, 소설은 용산을 무대로 하는 「임무」, 「염전」, 「원거리 접근」이 있고, 정읍을 무대로 하는 「빨간 제비뽑기」, 「백제의 풀」, 「도주로」가 있다. 본고에서는 세이초의 용산 제20사단 시절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전쟁의 전황과 그 안에서 ‘세이초가 바라본 조선’에 초점을 두면서 관련 작품을 분석하였다.

세이초의 조선군시기 관련 작품 분석을 통하여 첫째, 일본의 병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징병 확대와 병역 비리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징병 영장의 의미도 짚어 보았다. 두 번째로는 당시 용산의 병영 풍경과 위생병 세이초의 일상과 심경을 살펴보았다. 이 부분에서는 당시 의약품과 시설의 한계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조선인 지원병제와 징병제 실시의 실제 운용 상황을 살펴보았다. 지원의 자발성에 관한 논쟁이나 내선일체의 구호 속에 가려진 조선인 병사들의 실제 군 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것이 의의라고 할 수 있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1년 5월 15일

논문 심사일 : 2021년 6월 3일

게재 확정일 : 2021년 6월 10일

## 참고문헌

- 김영숙, 「전쟁의 제물로 강요당한 여성들-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빨간 제비뽑기(赤いくじ)」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공간』 28, 2020.
- 김용의,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한국 관련 작품 양상 및 특징」, 『일본연구』 84, 2020.
- \_\_\_\_\_, 「松本清張 추리소설의 살인 사건과 법의학」,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0.10.
- 마쓰모토 세이초, 김경남 옮김, 「빨간 제비」, 『어느 「고쿠라 일기」 전』, 모비딕, 2017(松本清張, 『ある「小倉日記」伝』新潮社, 1965).
- \_\_\_\_\_, 김경남 역, 『아직 늦지 않았다-마쓰모토 세이초, 반생의 기록』, 모비딕, 2019(松本清張, 「半生の記」, 『松本清張全集』34, 文藝春秋, 1974).
- 마쓰모토 세이초, 이규원 옮김, 『현란한 유리』, 도서출판 북스피어, 2018(松本清張, 『松本清張全集』2, 文藝春秋, 1971).
- 이상의, 「태평양전쟁기 조선인 전문학생·대학생의 학도지원병 동원 거부와 ‘학도징용」, 『역사교육』 141, 2017.
- 정안기, 「전시기 육군특별지원병제의 추계와 분석」, 『정신문화연구』 41-2(통권 151), 2018.
- 조 건, 「중일전쟁 이후 조선군의 ‘평양사단’ 증설과 그 의미」, 『송실사학』 44, 2020.
- 표영수, 「일제말기 병력동원정책의 전개와 평양학병사건」, 『한일민족문제연구』 3, 2002.
- 한기련,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 연구-한국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일

- 본문화학보』79, 2018.
- 加藤陽子, 『徴兵制と近代日本 1868-1945』, 吉川弘文館, 1996.
- 北九州市立松本清張記念館編, 『松本清張の軍隊時代-朝鮮の風景』, 北九州市立松本清張記念館, 2004.
- 南富鎮, 『松本清張と丸山眞男の朝鮮』, 『松本清張研究』14, 2013.
- 松本清張, 『遠い接近』, 文藝春秋, 1988.
- \_\_\_\_\_, 『任務』, 『松本清張研究』17, 2016.
- \_\_\_\_\_, 『厭戦』, 浅田次郎, 奥泉光, 川村湊, 高橋敏夫, 成田龍一編, 『コレクション戦争と文学』11, 集英社, 2012.
- 森史朗, 『松本清張への招集令状』, 文藝春秋, 2008.
- 半藤一利・小森陽一, 『朝鮮の風景・衛生兵の日常-清張の軍隊生活』, 『松本清張研究』17, 2016.
- 宮田節子編,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未来社, 1997.
- 吉田裕, 『アジア・太平洋戦争』, 岩波書店, 2007(번역서는 최혜주, 『아시아 태평양전쟁』, 어문학사, 2012)

Abstract

## Asia-Pacific War and Chosengun in the works of Matsumoto Seicho

Young-suk, Gim

Matsumoto Seicho served as a Nursing soldier in Yongsan and Jeongeup, for about a year and three months. From this experience, he wrote six novels and one autobiography. This paper analyzed related works focusing on the period Seicho spent in Yongsan.

Through analysis of Seicho's military-related works, first, I looked at the problems of expanding conscription and military service corruption to solve the shortage of troops. Secondly, you can see the barracks scenery of Yongsan and the daily life and feelings of Seicho, a Nursing soldier. Third, The problems of implementing the conscription system in colonial Chosen can be seen.

key words

Seicho Matsumoto, colonial Choseon, Chosengun, Yongsan, Asia-Pacific War